중2 역사 1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과 제3 세계의 형성

자기 나라를 세우고,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다

한눈에 보기 · 지도	지도·연표·인물로 먼저 보기	**2**
① 전후 독립과 아프리카의 새 국가	질문 01~05	**7**
② 이집트의 주권 강화와 수에즈 운하	질문 06~09	**12**
③ 인도·동남아시아의 독립과 남은 과제	질문 10~15	**19**
④ 제3 세계의 형성과 비동맹 운동	질문 16~21	**28**
한눈에 정리 · 나라별 독립 정리표		**35**
확인 문제	28문항	**36**
빠른 정답		**46**
정답과 해설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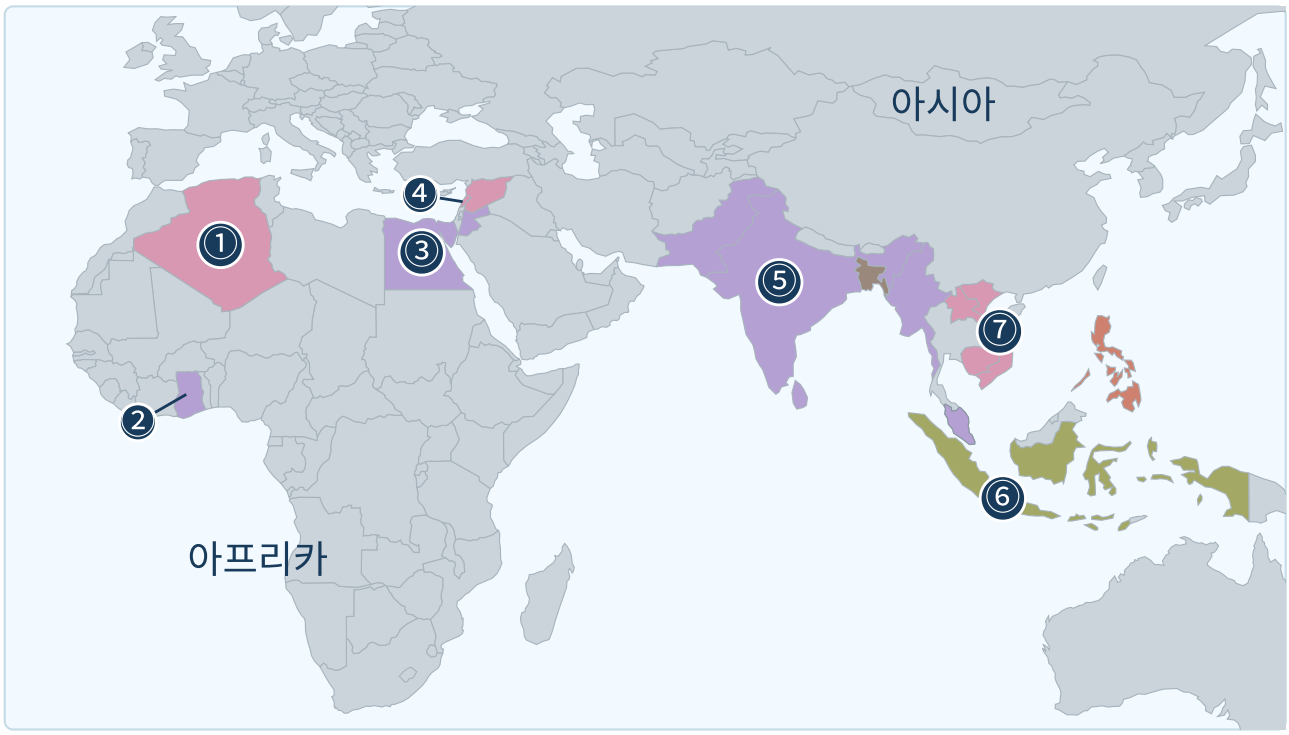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도

이 편의 '전후'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뒤를 가리켜요.

전후 독립과 연대 · 나라의 위치와 이전 통치국



① 북아프리카 알제리	② 서아프리카 가나	③ 북동아프리카 이집트
④ 서아시아 시리아·레바논·요르단	⑤ 남아시아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⑥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⑦ 동남아시아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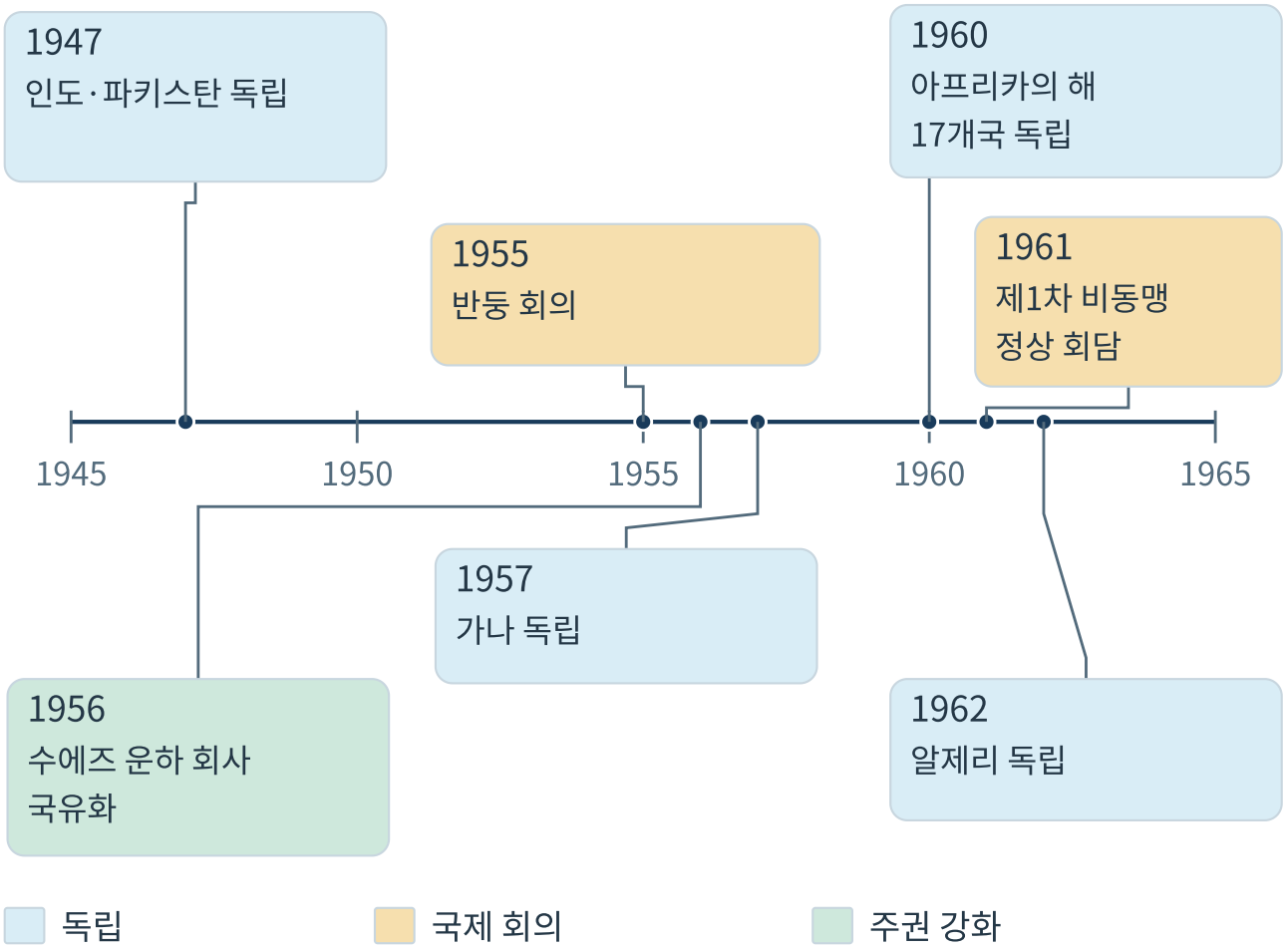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미국 · 파키스탄

현대 윤곽에 대표 위치를 표시했어요. 시대별 정밀 국경이 아니며,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상대를 칠했어요.

> 나라·지역의 대표 위치를 나타낸 위치 안내 지도예요. 당시 국경을 재현한 정치 지도는 아니에요.

한눈에 보기 · 연표

전후 독립과 협력 · 1945~1965년 비례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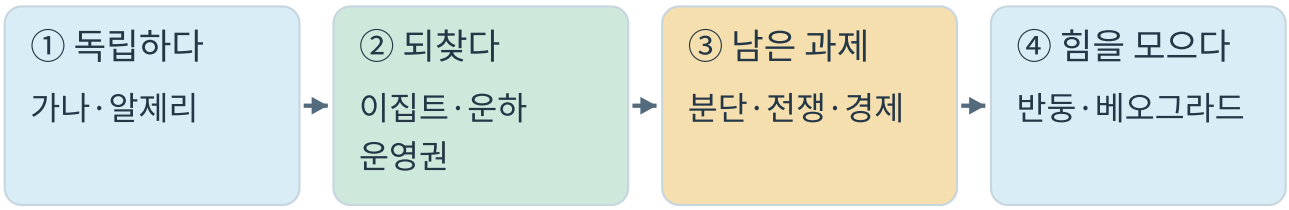


→ 이 연표 뒤: 1971 방글라데시 독립 · 1975 베트남 전쟁 종결

가로 길이는 시간에 비례해요. 상자 색은 독립·국제 회의·주권 강화를 구별해요.

> 파랑=독립, 노랑=국제 회의, 초록=주권 강화예요. 시간의 가로 간격은 연도에 비례해요.

이 편의 큰 흐름 · 독립 뒤에도 변화는 계속되다



앞선 변화가 끝난 뒤에만 다음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독립·주권 강화·남은 과제·국제 협력이 이어지는 큰 흐름이에요.

이 단원의 인물과 대표 사건

인물과 사건 ① · 독립과 주권



은크루마

가나 · 독립 운동 지도자

1957년 가나 독립

주민의 참여를 모아
독립 운동을 이끌었어요.

독립 당시 첫 총리가
되었어요.



나세르

이집트 · 대통령

1956년 국유화 선언

수에즈 운하 회사를
국가 소유로 바꿨어요.

운하 운영과 수입의
통제권을 강화했어요.



호찌민

베트남 · 독립 운동 지도자

1945년 독립 선언

사람들 앞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 뒤에도 독립을 위한
전쟁이 이어졌어요.

대표 활동을 보여 주도록 재구성한 장면이에요.

> 독립 운동·국유화 선언·독립 선언의 특징을 보여 주도록 재구성한 장면이에요. 나세르 그림은 연설과 운하 운영을 한 화면에 묶었어요.

인물과 사건 ② · 새 독립국들의 협력



네루

인도 · 독립 뒤 첫 총리

1955년 반둥 회의

여러 나라 대표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새 독립국들의 연대와
비동맹에 참여했어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 대통령

1955년 반둥 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의
협력을 이끌었어요.



티토

유고슬라비아 · 지도자

1961년 베오그라드

비동맹 정상 회담을 열어
여러 나라 정상을 맞았어요.

어느 한 진영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려 했어요.

대표 활동을 보여 주도록 재구성한 장면이에요.

> 세 인물의 대표 활동을 보여 주도록 재구성한 장면이에요. 실제 회의의 좌석·동선·회장 내부를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민족 해방 전선은 개인이 아니라 알제리의 독립 운동 조직이에요.

이름	누구·어디·무엇인가요?
은크루마	가나 독립 운동 지도자. 독립 당시 첫 총리
나세르	이집트 군인 출신 지도자. 1952 정변 참여, 1956 대통령
네루	인도 독립 운동 지도자이자 첫 총리. 반둥·비동맹 참여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지도자·초대 대통령. 반둥 회의 개최
티토	유고슬라비아 지도자. 1961 베오그라드 정상 회담 개최
호찌민	베트남 독립 운동 지도자. 1945 독립 선언
민족 해방 전선	알제리에서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인 조직

① 전후 독립과 아프리카의 새 국가

누가, 언제, 어떻게 독립했을까?

이 구역의 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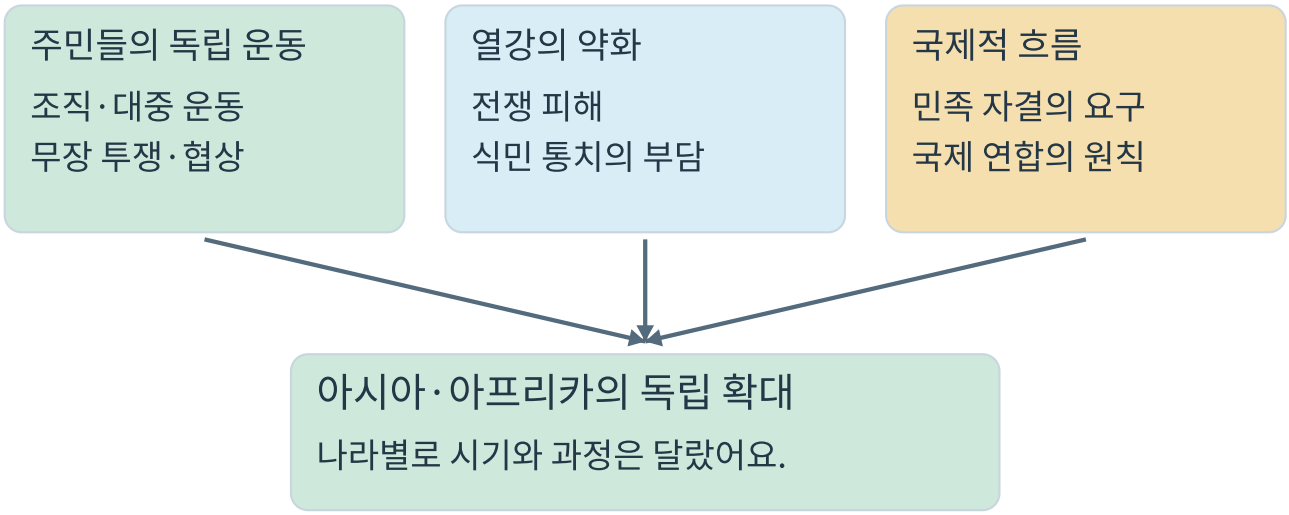
종류	말	쉬운 뜻
시대 표현	**전후**	전쟁이 끝난 뒤. 이 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뒤
지배 형태	**식민 지배**	외국이 한 지역의 정치·경제 등을 지배하는 일
역사 개념	**독립**	외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를 세우고 다스림
역사 개념	**주권**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활동	**무장 투쟁**	무기를 사용해 싸우는 저항
활동	**협상**	서로의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찾는 일
사람	**난민**	전쟁·박해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국제 질서	**열강**	여러 나라를 지배할 만큼 힘이 센 강대국들
원칙	**민족 자결**	각 민족이 자기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국제기구	**국제 연합(유엔)**	제2차 세계 대전 뒤 만든 기구. 제1차 세계 대전 뒤 국제 연맹과 구별

Q01 제2차 세계 대전 뒤에 독립국이 늘어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 **식민 지배에 맞선 사람들의 오랜 독립 운동에, 전쟁 뒤 열강의 약화와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적 흐름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근거 제2차 세계 대전은 1945년에 끝났어요. 영국·프랑스 등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예전처럼 넓은 식민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점령이 끝난 뒤 유럽 국가가 다시 지배하려 하자 주민들이 저항했어요. 각 지역 사람들의 조직·대중 운동·무장 투쟁·협상이 독립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었어요. 나라와 지역에 따라 과정은 달랐어요. 전후에는 각 민족이 자기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의 요구가 커졌고, 국제 연합(유엔)도 민족의 자결과 평등 원칙을 내세웠어요.

전후 독립 · 주민의 운동과 국제적 조건



열강이 약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 독립을 이끈 주민들의 활동과 전쟁 뒤 국제적 조건이 겹쳤어요.

헷갈리지 말 것 유럽 국가들이 약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Q02 서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가 새로 독립했나요?

답 **네. 시리아·레바논·요르단 등이 외국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건국과 전쟁이 이어졌어요.**

근거 앞 편의 위임 통치는 제1차 세계 대전 뒤 국제 연맹 체제에서 외국이 통치를 맡은 제도예요. 제2차 세계 대전 뒤의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지역	이전 통치	제2차 세계 대전 뒤
시리아·레바논	프랑스 위임 통치	프랑스군 철수, 독립
요르단	영국 위임 통치	독립
팔레스타인 지역	영국 위임 통치	1948 이스라엘 건국 → 아랍 국가들과 전쟁 → 팔레스타인 난민 발생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거나 피란해 난민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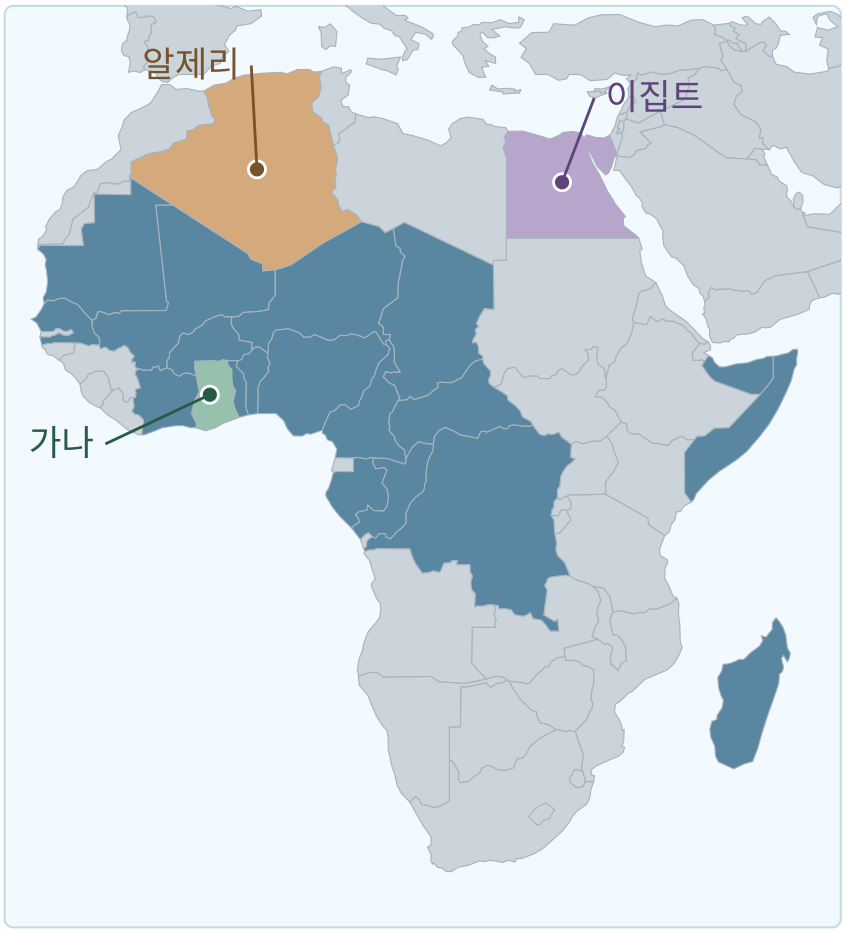
헷갈리지 말 것 팔레스타인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독립해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에요. 국가 수립과 난민·영토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해요.

Q03 1960년을 왜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나요?

답 그 한 해에 아프리카의 17개국이 독립했기 때문이에요.

근거 아프리카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뒤 독립 운동이 확대되었어요. 특히 1960년에 여러 지역의 독립이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가나는 1957년에, 알제리는 1962년에 독립했어요. 이처럼 같은 대륙 안에서도 시기와 과정은 달랐어요.

아프리카 · 1960년에 독립한 17개국



1957년 · 가나
영국 지배에서 독립
은크루마 · 첫 총리

1960년 · 아프리카의 해
진한 색의 17개국 독립
모든 나라의 독립이
같은 해는 아니에요.

1962년 ·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프랑스에서 독립

이집트: 1922 독립 인정
1956 운하 회사 국유화

- 1960년에 독립한 17개국
- 다른 시기에 독립한 나라 등
- 가나 · 1957
- 알제리 · 1962
- 이집트 · 1922 독립 인정

오늘날 국경을 바탕으로 한 위치 안내 지도예요. 소말리아는 1960년 합쳐 독립한 두 지역을 함께 칠했어요.

> 진한 색은 1960년 독립한 17개국이에요. 오늘날 국경을 바탕으로 한 위치 안내 지도예요.

헷갈리지 말 것 1960년에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독립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Q04 은크루마는 가나의 독립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선 독립 운동을 이끌었고, 1957년 독립한 가나의 첫 총리가 되었어요.

근거 가나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어요. 은크루마는 정당을 조직하고 대중의 참여를 모아 자치와 독립을 요구했어요. 독립 전 이 지역은 골드코스트('황금 해안'이라는 뜻의 영국 식민지 이름)라고 불렸어요. 1957년 가나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을 때 은크루마는 첫 총리였어요. 은크루마는 뒤에 가나의 대통령도 되었어요.

☞ 앞의 「인물과 사건 ①」 은크루마 그림

헷갈리지 말 것 가나를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독립국이라고 외우지 않아요. 은크루마의 독립 당시 직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예요.

Q05 알제리의 독립은 가나와 과정이 같았나요?

답 두 나라 모두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알제리에서는 프랑스에 맞선 오랜 무장 투쟁이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근거 알제리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민족 해방 전선은 1954년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였어요. 전쟁과 협상을 거쳐 1962년 독립했어요. 가나에서는 은크루마를 중심으로 한 대중 운동과 정치적 활동이 독립을 이끌었어요. 공통 목표가 있어도 중심이 된 세력·방법·시기는 같지 않았어요.

가나와 알제리 · 독립 목표와 과정 비교

공통 목표: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항목	가나	알제리
지배국	영국	프랑스
중심 세력	은크루마·정당·주민	민족 해방 전선
주된 방법	대중 운동·정치 활동	무장 투쟁·협상
독립 연도	1957년	1962년
지도자·조직	은크루마 · 첫 총리	민족 해방 전선(조직)

중심 과정을 비교했어요. 다른 형태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중심 세력·방법·시기는 달랐어요.

헷갈리지 말 것 독립 과정에 협상이 있었다고 무장 투쟁이 없었다고 보거나, 무장 투쟁이 있었다고 협상이 없었다고 보지 않아요.

핵심 빈칸 1~5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전후 독립의 확대는 ( )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의 변화이다.
2. 아프리카의 17개국이 독립한 '아프리카의 해'는 ( )년이다.
3. 가나가 독립한 해는 ( )년이다.
4. 가나의 독립 운동을 이끌고 독립 당시 첫 총리가 된 인물은 ( )이다.
5. 알제리는 ( )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1962년 독립했다.

② 이집트의 주권 강화와 수에즈 운하

독립한 뒤에도 무엇을 되찾으려 했을까?

수에즈 운하 ·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길



나일강은 북쪽 삼각주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요. 운하와 댐은 위치·기능이 달라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지중해 쪽과 홍해 쪽을 잇는 길이에요. 아스완 하이 댐은 남쪽 나일강에 있어요.

이 구역의 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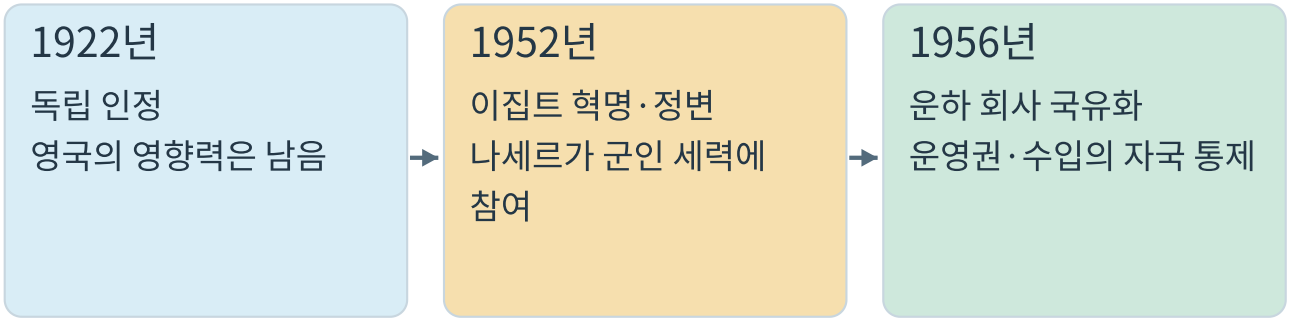
종류	말	쉬운 뜻
정치 변화	**정변**	정상적인 절차 밖에서 권력이 바뀌는 일
정책	**국유화**	기업이나 재산을 국가가 소유·관리하도록 바꾸는 일
시설	**운하**	배가 지나가도록 땅을 파 바다·강 등을 연결한 물길
시설	**댐**	강물을 가두거나 흐름을 조절하는 시설
개발	**수력발전**	물의 흐름과 높이 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일
정치 제도	**왕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
재산	**자산**	회사가 가진 돈·건물·장비 같은 재산
사건	**수에즈 위기**	1956 국유화 뒤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과 국제적 위기.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함

Q06 이집트는 1922년에 독립했는데 왜 다시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나요?

답 **독립을 인정받은 뒤에도 영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외국의 경제적 지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거 1922년의 독립 인정은 중요한 변화였지만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군사 문제 등에 큰 영향력을 유지했어요. 1952년 나세르가 참여한 군인 세력은 왕을 몰아내는 정변을 일으켰어요. 나세르는 1954년부터 정권의 중심에 섰고, 1956년 대통령이 되어 외세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어요.

이집트 · 독립 인정 뒤에도 남은 과제



1953 공화국 선포 → 1954 나세르가 정권 중심 → 1956 대통령

1952년부터 곧바로 대통령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 독립 인정 뒤에도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변화가 이어졌어요.

더 알기 1952년의 정변을 '이집트 혁명'이라고도 해요. 왕정을 무너뜨리는 과정 뒤 1953년 공화국이 선포되었어요.

비유 집 문패는 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옛 주인이 열쇠와 전기 관리권을 계속 쥔 상황과 비슷해요.

헷갈리지 말 것 1952년 정변과 1956년 운하 회사 국유화를 같은 사건으로 외우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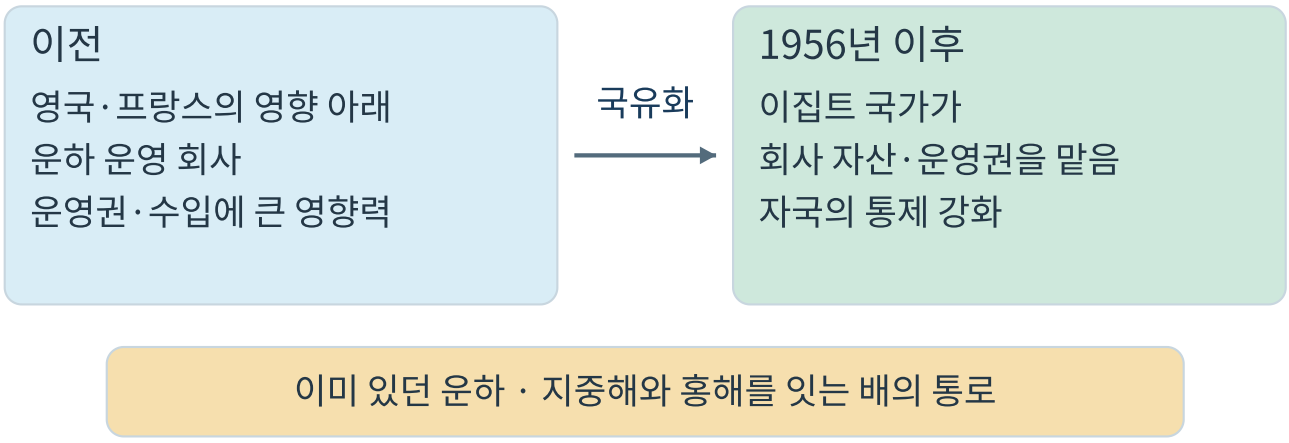
Q07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다'는 것은 새로 운하를 팠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이미 있던 운하를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의 자산과 운영권을 이집트 국가가 맡도록 바꾼 일이에요.**

근거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배의 통로예요. 1869년에 개통되었지만, 운하 운영 회사는 영국·프랑스의 큰 영향 아래 있었어요. 나세르는 1956년 운하 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국유화는 기업이나 재산을 국가가 소유·관리하도록 바꾸는 일이에요. 운하에서 생기는 수입과 운영을 자국이 통제하려는 주권 강화 정책이었어요.

☞ 앞의 「인물과 사건 ①」 나세르 그림

국유화 · 운하는 그대로, 운영하는 주인이 바뀌다



국유화는 새 운하 건설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매각을 뜻하지 않아요.

> 운하를 처음 판 것이 아니라, 운영 회사의 소유·관리 주체를 바꾼 일이에요.

더 알기 시험에서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라고도 해요. 정확히는 운하를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운영권을 국가가 맡은 일이에요.

비유 이미 있던 놀이공원의 운영 회사를 시가 맡는 것처럼, 시설은 그대로 두고 운영 주체를 바꾼 일이에요. (여기서 국유화 주체는 이집트 국가예요.)

헷갈리지 말 것 국유화는 새 운하를 짓는 일도, 외국 기업에 파는 일도, 외국 배를 영원히 못 지나가게 막는 일도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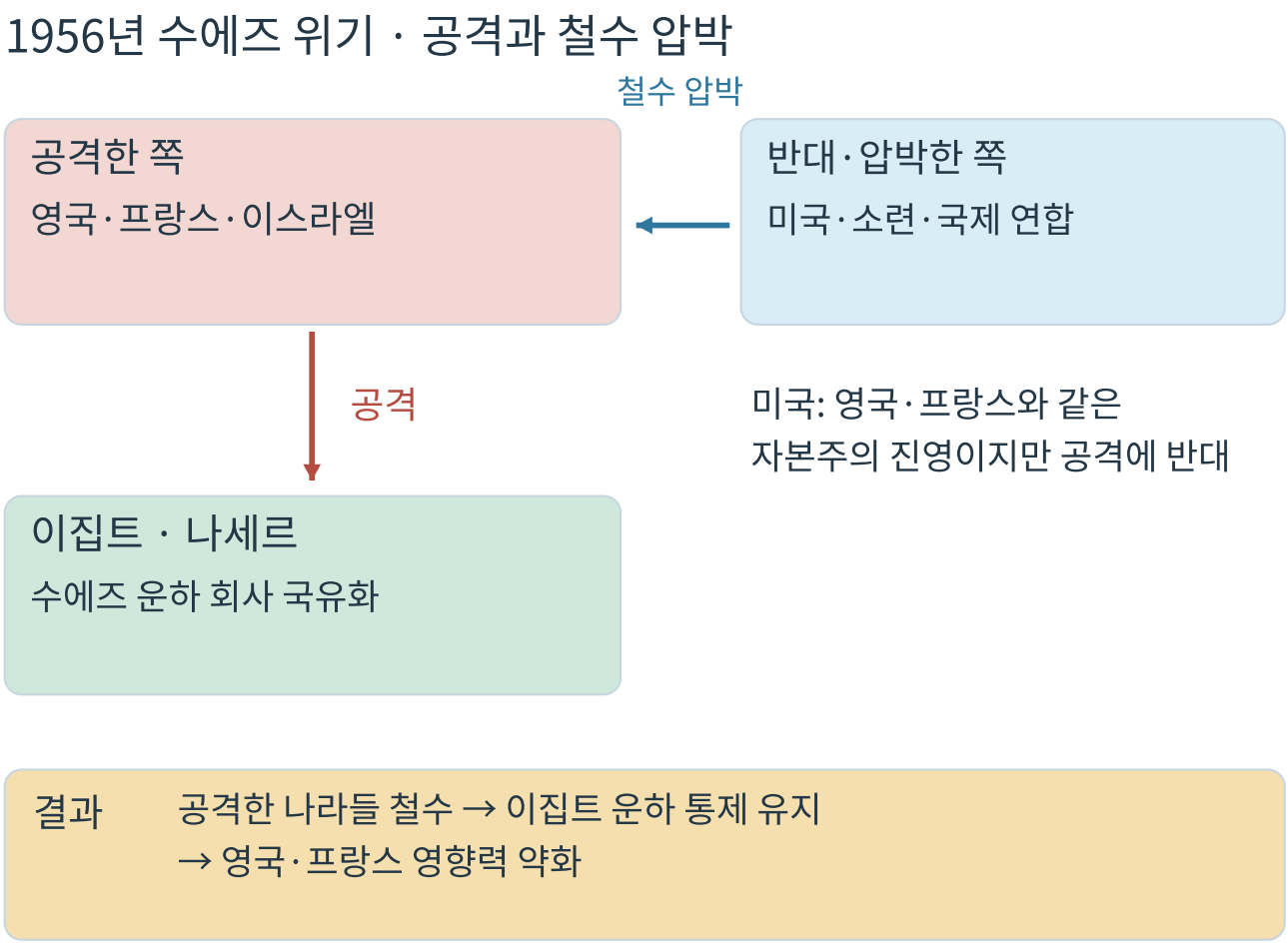
Q08 수에즈 위기 때 미국은 영국·프랑스를 무조건 도왔나요?

답 아니에요.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에 미국도 반대하며 철수를 압박했어요.

근거

공격한 쪽	공격받은 쪽	반대·철수를 압박한 쪽
영국·프랑스·이스라엘	이집트(나세르 정부)	미국·소련, 국제 연합

1956년 운하 회사 국유화 → 세 나라의 이집트 공격 → 국제적 반대·압력 → 공격한 나라들의 철수로 이어졌어요. 이집트는 운하 통제를 유지했고 영국·프랑스의 영향력은 약해졌어요. 미국·소련·국제 연합의 역할과 압박 방식이 모두 같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 나라·국제기구의 압박 방식이 모두 같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 세 나라의 공격에 미국·소련도 반대했어요. 같은 진영이라고 모든 정책이 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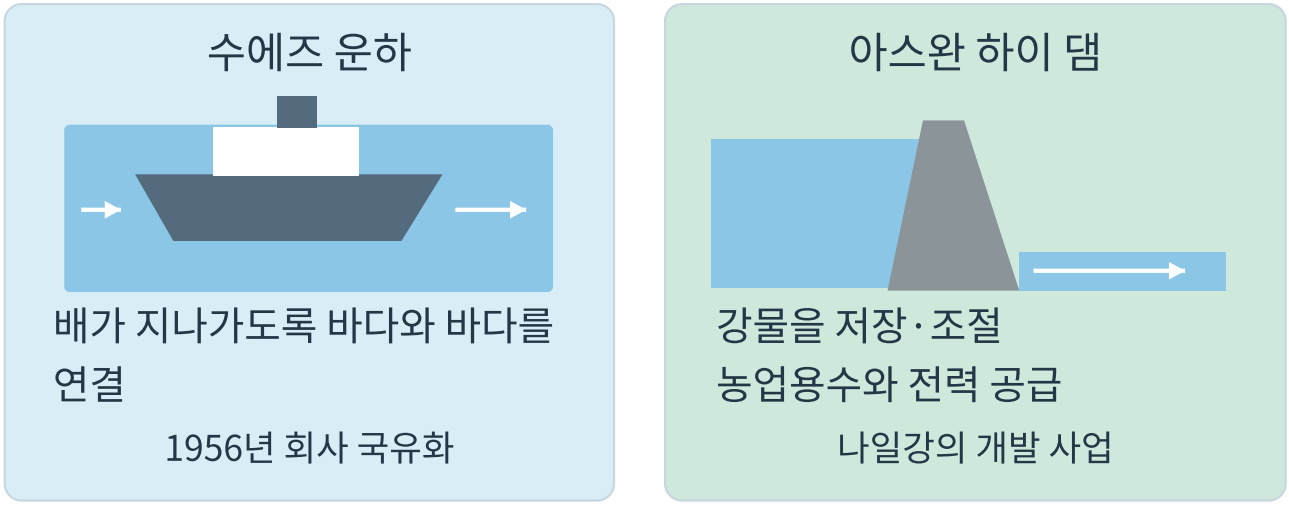
헷갈리지 말 것 냉전에서 같은 진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이해관계와 정책이 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Q09 수에즈 운하와 아스완 하이 댐은 같은 시설인가요?

답 **아니에요. 운하는 배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댐은 강물을 저장·조절하고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에요.**

근거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해 배의 이동을 도와요. 아스완 하이 댐은 이집트 남부 나일강에 지어졌어요. 나세르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물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얻으려 했어요. 큰 댐은 생활과 산업에 도움이 되었지만, 주민 이주와 유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문제도 낳았어요. 댐 때문에 물에 잠길 위기에 놓인 아부심벨 신전 같은 고대 유적은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높은 곳으로 옮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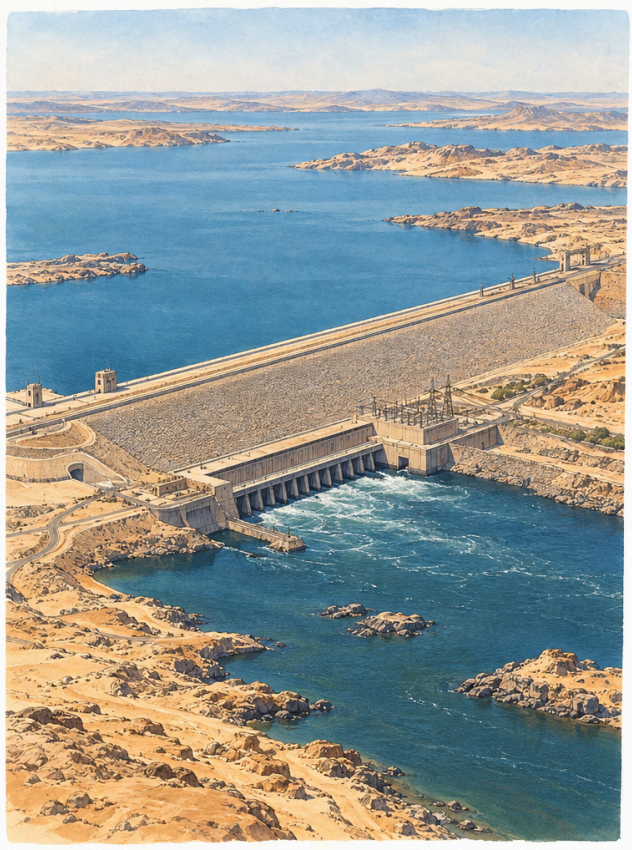
운하와 댐 · 물과 관련되어도 기능이 다르다



시설의 기능을 비교한 개념도예요. 수에즈 운하 회사 국유화와 댐 건설을 구별해요.

> 운하는 배의 이동, 댐은 물의 저장·조절과 발전이라는 기능 차이가 있어요.

아스완 하이 댐과 아부심벨 신전 · 개발과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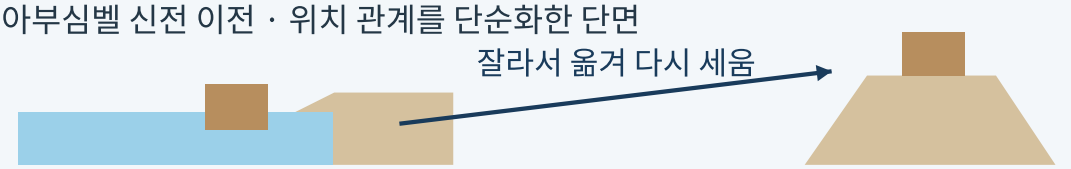


아스완 하이 댐

물 저장·농업용수·전력 공급
큰 저수지 조성

아부심벨 신전

수몰 위기 → 국제 협력으로
높은 곳으로 옮겨 보존



재구성 그림이에요. 왼쪽에서 두 번째 거상의 윗부분은 고대에 무너졌어요.

> 아스완 하이 댐의 개발 효과와 아부심벨 신전 보존을 함께 보여 주는 재구성 그림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1956년의 국유화 대상은 수에즈 운하 운영 회사예요. 아스완 하이 댐을 국유화해 운하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핵심 빈칸 6~7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6. 1956년 수에즈 운하 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집트 지도자는 ( )이다.

7. 기업이나 재산을 국가가 소유·관리하도록 바꾸는 일을 ( )라고 한다.

③ 인도·동남아시아의 독립과 남은 과제

독립하면 문제가 다 끝났을까?

이 구역의 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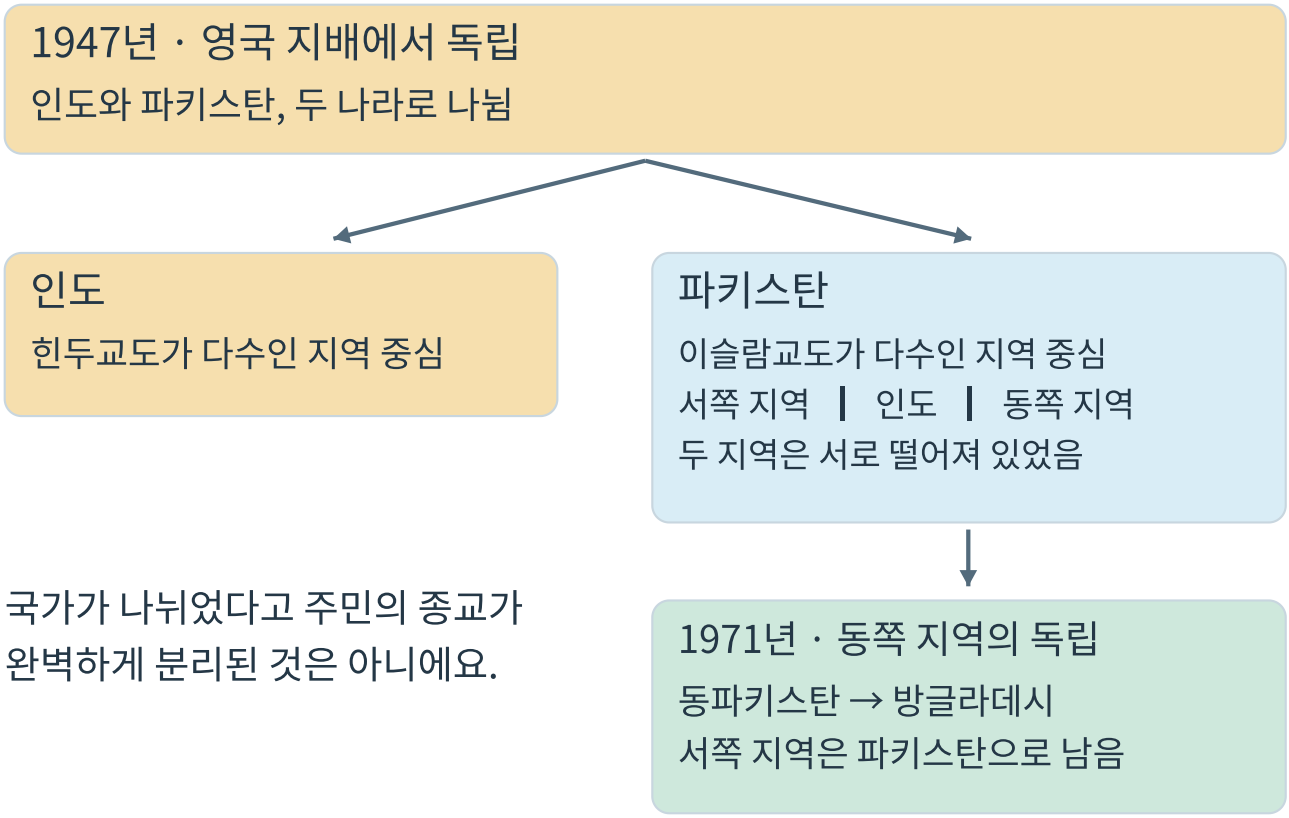
종류	말	쉬운 뜻
나라 이름	**영국령 인도**	영국이 지배하던 인도 지역. 오늘날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을 포함
지역 이름	**동파키스탄**	뒤에 방글라데시가 된 파키스탄의 동쪽 지역
지역 이름	**말라야**	말레이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국가의 옛 이름
역사 개념	**자치**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함. 완전한 독립과는 다를 수 있음
권리 이동	**이양**	권리·권한을 넘겨줌. 주권 이양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넘겨줌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등이 프랑스와 벌인 독립 전쟁. 1954년 끝남
전쟁	**베트남 전쟁**	분단 뒤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며 커진 전쟁. 1975년 끝남
협정	**제네바 협정**	1954 인도차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약속. 베트남은 17도선 부근 기준으로 일시 분단

Q10 인도와 파키스탄은 왜 나뉘어 독립했나요?

답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종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서로 다른 국가를 세우려는 정치적 요구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근거 1947년 영국령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독립했어요. 힌두교도가 다수인 지역은 인도,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지역은 파키스탄이 되는 구도가 중심이었어요. 분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이주했고 큰 폭력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종교별 주민이 국경을 따라 완벽하게 나뉘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도 남쪽 인도양에는 섬나라 스리랑카가 있어요. 스리랑카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했어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 두 시점을 나누기



1947년의 독립 상대는 영국,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 상대는 파키스탄이에요.

> 1947년에는 영국에서, 1971년에는 파키스탄에서 벗어났어요.

1947년 분리 독립 ·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



분리 과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 이주했어요. 재구성 장면이에요.

분리 과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 이주했어요. 재구성 장면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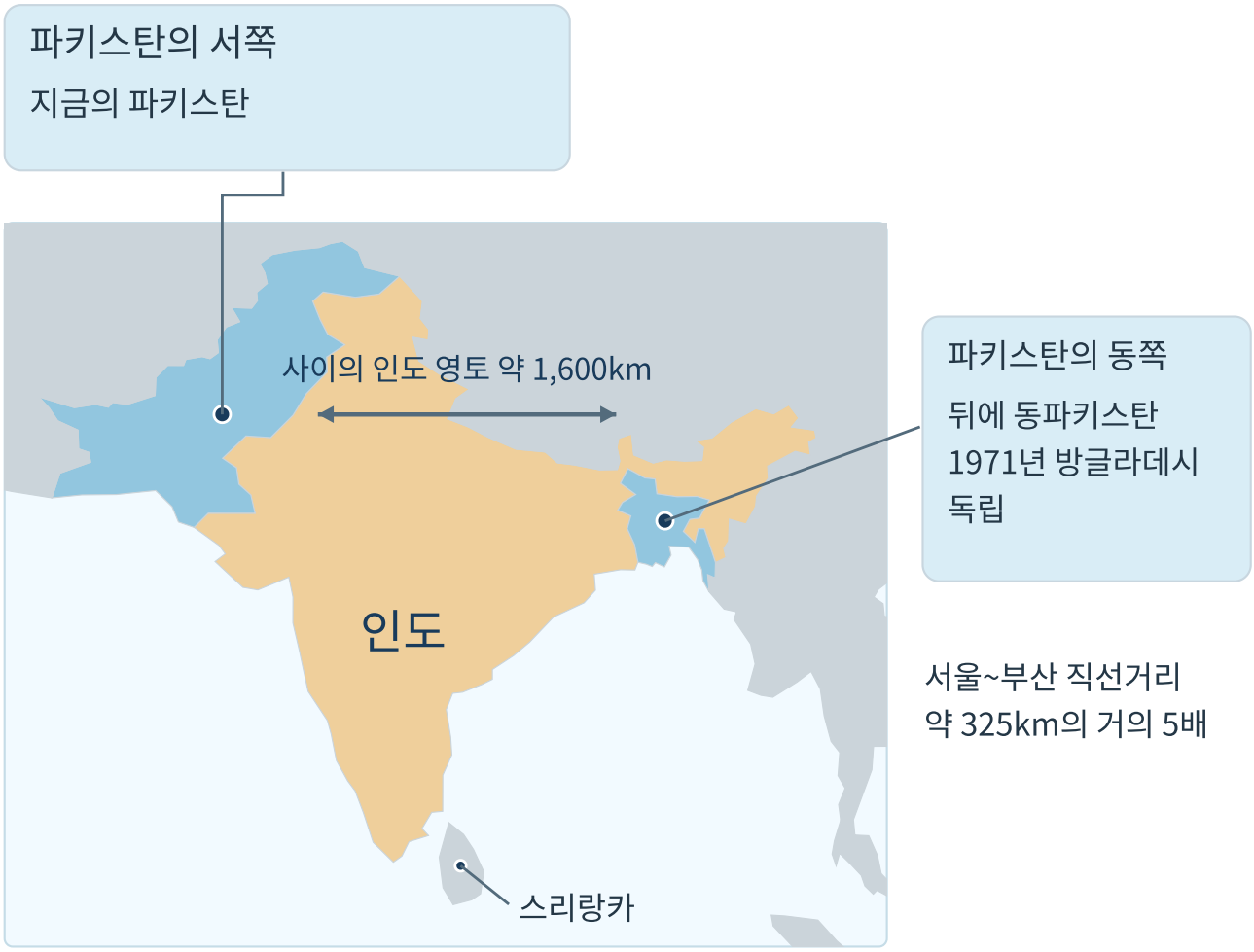
헷갈리지 말 것 인도에는 힌두교도만, 파키스탄에는 이슬람교도만 살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Q11 파키스탄이 원래 두 곳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답 **독립 당시 파키스탄에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서쪽과 동쪽 지역이 있었어요.**

근거 지금의 파키스탄은 당시 서쪽 지역에 해당해요. 동쪽 지역은 뒤에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렸으며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있는 곳이에요. 두 지역은 이슬람교도가 다수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언어·문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는 달랐어요. 동쪽 지역에서는 차별과 자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고, 1971년 전쟁을 거쳐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어요. 두 지역 사이에는 약 1,600km에 이르는 인도 영토가 놓여 있었어요.

1947년 파키스탄 · 인도 사이로 떨어진 두 지역



거리는 두 지역 사이 인도 영토의 대략적인 폭이에요.

1947년의 위치 관계예요. 정밀 국경·분쟁 지역의 구획은 생략했어요.

> 두 지역 사이에는 약 1,600km의 인도 영토가 있었어요.

비유 약 1,600km는 서울~부산 직선거리 약 325km의 거의 5배예요.

헷갈리지 말 것 1947년 영국에서 벗어난 일과 1971년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가 분리된 일은 달라요.

Q12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모두 같은 나라의 식민지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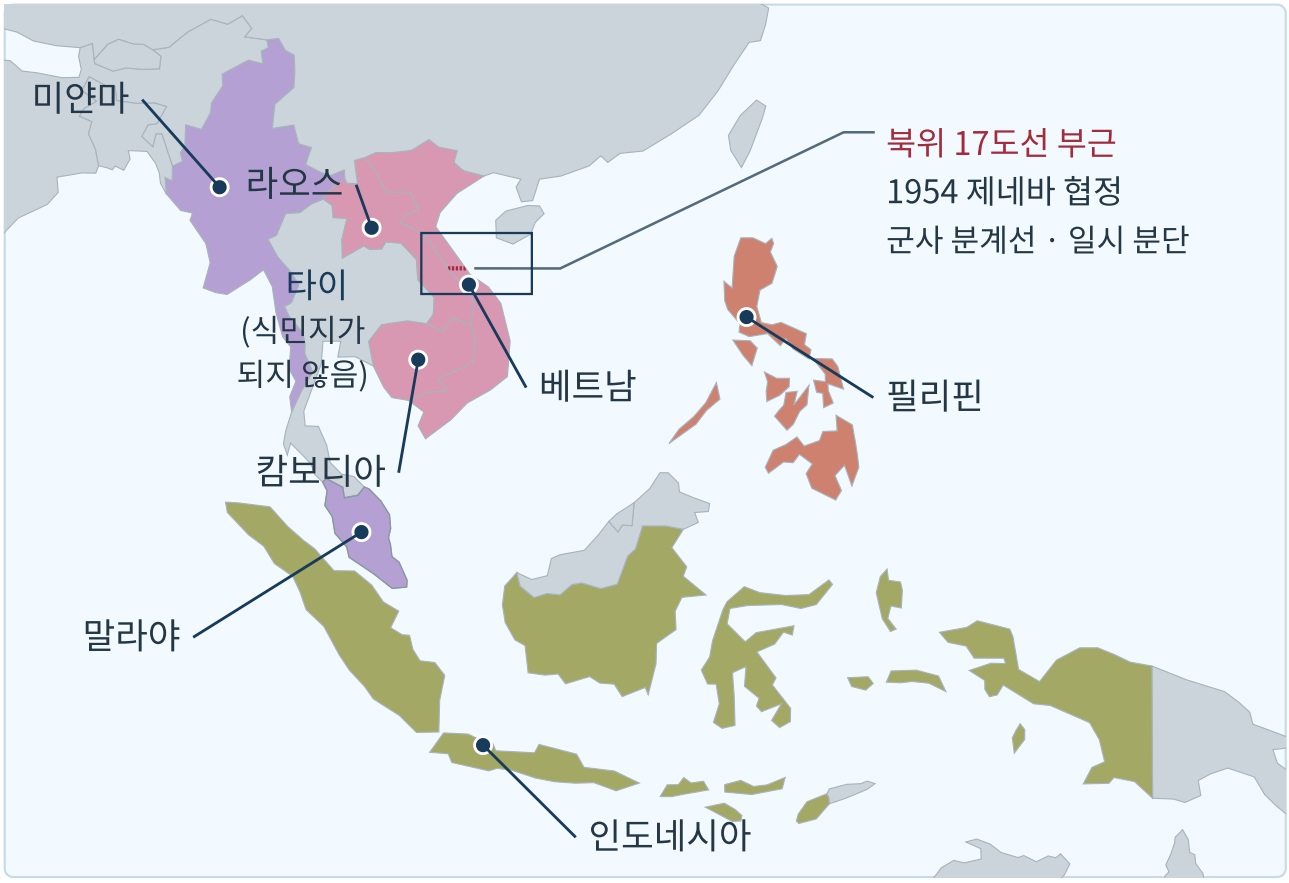
답 아니에요. 지역마다 식민 지배를 한 나라와 독립 과정이 달랐어요.

근거 지역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주된 식민 지배국과 독립 과정이 달랐어요. 전쟁 중 일본의 점령은 그 이전의 식민 지배와 구별해요.

지역·나라	전쟁 이전의 주된 식민 지배국	전후의 변화
베트남	프랑스	1954 프랑스 철수 뒤에도 분단·베트남 전쟁
라오스·캄보디아	프랑스	프랑스 지배에서 독립(베트남의 전쟁 연표와 구별)
미얀마	영국	영국 지배에서 독립
말라야	영국	1957 말라야 연방 독립 → 1963 말레이시아 형성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1945 독립 선언 → 1949 주권 이양
필리핀	미국	1946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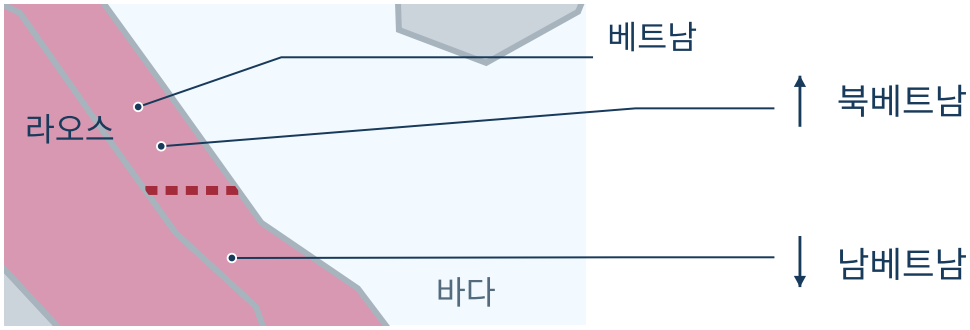
말라야와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이름·영역이 같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 이전 식민 지배국과 베트남 분단



17도선 · 베트남 구간 확대

큰 지도의 파란 상자 부분



말라야는 말레이반도 부분만 칠했어요. 북부 보르네오는 1963년 형성과 구별해요. 현대 윤곽을 쓴 위치 안내이며 시대별 국경 재현은 아니에요.

색은 전쟁 이전의 주된 식민 지배국이에요. 일본의 전쟁 중 점령과 구별해요.

> 전쟁 이전 주된 식민 지배국을 색으로 구별해요. 베트남의 점선은 1954 제네바 협정에 따른 군사 분계선의 대략적인 위치예요.

헷갈리지 말 것 필리핀의 더 오래전 역사에는 에스파냐 지배가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뒤 독립할 때의 지배국은 미국이에요.

Q13 독립 선언을 한 해와 외국이 주권을 인정한 해는 왜 다를 수 있나요?

답 **독립을 선언한 뒤에도 지배하려는 외국과의 싸움이나 협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 1945 독립 선언(수카르노 등) → 네덜란드가 다시 지배하려 함 → 전쟁·협상 → 1949 주권 이양

하나의 독립 과정 안에서도 선언·전쟁·협정·승인 같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비유 “내 방은 내가 관리해”라고 선언한 날과 실제 열쇠를 넘겨받은 날은 다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과정에는 전쟁과 희생이 있었어요.)

헷갈리지 말 것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기록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Q14 베트남은 프랑스가 물러나자 곧바로 평화롭게 통일되었나요?

답 **아니에요.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분단과 전쟁이 이어졌어요.**

근거 1945 독립 선언(호찌민) → 인도차이나 전쟁 → 1954 제네바 협정·17도선 기준 일시 분단 → 베트남 전쟁(미국 개입 확대) → 1973 미군 철수 → 1975 북베트남 승리·전쟁 종결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 운동을 이끈 지도자예요.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려 하자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른 군사 분계선은 앞의 동남아시아 지도에 그린 점선처럼 북위 17도선 부근에 놓였어요. 이후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했고 개입을 확대했어요. 1973년 파리 평화 협정 뒤 미군이 철수했지만 전쟁은 1975년까지 이어졌어요.

베트남 · 독립 선언에서 전쟁 종결까지

1945	독립 선언 · 호찌민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려 함
선언 뒤	인도차이나 전쟁 프랑스와 독립 세력의 전쟁
1954	제네바 협정 17도선 부근 기준 일시 분단
분단 뒤	베트남 전쟁 미국의 남베트남 지원·개입 확대
1973	파리 평화 협정 · 미군 철수 철수 뒤에도 전쟁은 이어짐
1975	북베트남 승리 · 전쟁 종결 1976 통일 국가 공식 출범

전쟁 이름·분단·외국군 철수·최종 결말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 1945 독립 선언 → 인도차이나 전쟁 → 제네바 협정 → 베트남 전쟁 → 미군 철수 → 1975 전쟁 종결을 구별해요.

헷갈리지 말 것 '프랑스의 철수', '미군의 철수', '북베트남의 승리'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Q15 독립국이 되면 경제 문제와 갈등도 바로 사라지나요?

답 **아니에요. 국가를 세운 뒤에도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과제가 남았어요.**

근거 식민 지배 아래에서 특정 농산물이나 원료 생산에 치우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지역도 있었어요. 독립 뒤 산업·교육·생활 기반을 키우는 일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외국의 경제적 영향, 국경과 집단 간 갈등도 남아 있었어요. 다만 독립국들의 경제와 정치 상황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나는 독립 무렵 수출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요. 한두 품목에 크게 의존하면 국제 가격 변화가 수입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을 다양하게 키우는 과제가 남아요.

헷갈리지 말 것 어려움이 남았다는 사실이 독립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는 중요한 변화예요.

핵심 빈칸 8~9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8. 1947년 영국령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두 나라는 ( ), ( )이다.

9. 1971년 동파키스탄에서 독립한 국가는 ( )이다.

④ 제3 세계의 형성과 비동맹 운동

새 독립국들은 어떻게 힘을 모았을까?

이 구역의 낯선 말

종류	말	쉬운 뜻
냉전 용어	**진영**	비슷한 목표로 협력하는 나라들의 편
냉전 용어	**제3 세계**	두 진영에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길을 추구한 신생 독립국 등의 흐름
외교 방향	**비동맹**	어느 한 강대국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외교를 추구함
정치 용어	**내정**	한 나라 안의 정치·사회 문제
인물의 지위	**정상**	나라의 최고 지도자
이전 운동	**범아프리카 운동**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인종 차별·식민 지배에 맞서 협력한 운동
국제 질서	**냉전**	미국·소련 중심 두 진영의 정치·경제·군사 대립. 두 강대국은 직접 전면전을 피했지만 지역 전쟁은 일어남
국가	**신생 독립국**	새로 독립한 나라
태도	**반식민주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태도
관계	**종속**	남의 뜻과 힘에 얽매여 따르게 됨
태도	**자율적**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Q16 ‘제3 세계’는 세 번째로 좋은 나라라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냉전의 두 진영에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길을 추구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등을 가리키는 당시의 표현이에요.**

근거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맞서는 가운데, 새 독립국들은 다시 강대국의 뜻에 끌려다니는 것을 경계했어요. 반식민주의·평화·발전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서로 협력하려 했어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처럼 이 흐름에 참여한 나라도 있었어요.

냉전의 두 진영 사이에서 자율적인 길을 찾다

미국 중심 진영
자본주의 진영
군사·경제 협력

냉전의 대립

소련 중심 진영
공산주의 진영
군사·경제 협력

제3 세계 · 비동맹의 지향
어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외교
반식민주의 · 평화 · 발전
서로 다른 나라들의 협력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등 +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같은 참여국

세 번째 초강대국이나 하나의 통일 국가, 나라의 우열을 정한 등급이 아니에요.

> 제3 세계는 한 국가나 경제 순위가 아니라, 두 진영에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으려 한 흐름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나라의 우열을 매긴 등급도, 아프리카만 가리키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날 가난한 나라를 함부로 낮추어 부르는 말로 쓰지 않아요.

Q17 1955년 반둥에서는 어떤 회의가 열렸나요?

답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렸고, 식민 지배 반대와 평화로운 협력을 논의했어요.**

근거 아시아·아프리카 29개 나라·지역의 대표가 모였어요. 인도의 네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식민 지배와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협력하려 했어요. 참가한 나라들의 정치 체제와 강대국과의 관계는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미국과 동맹 관계였던 필리핀·일본도 참가했어요. 모든 참가국이 같은 진영이나 훗날 비동맹 운동의 같은 회원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둥 회의 · 서로 다른 나라가 함께 목소리를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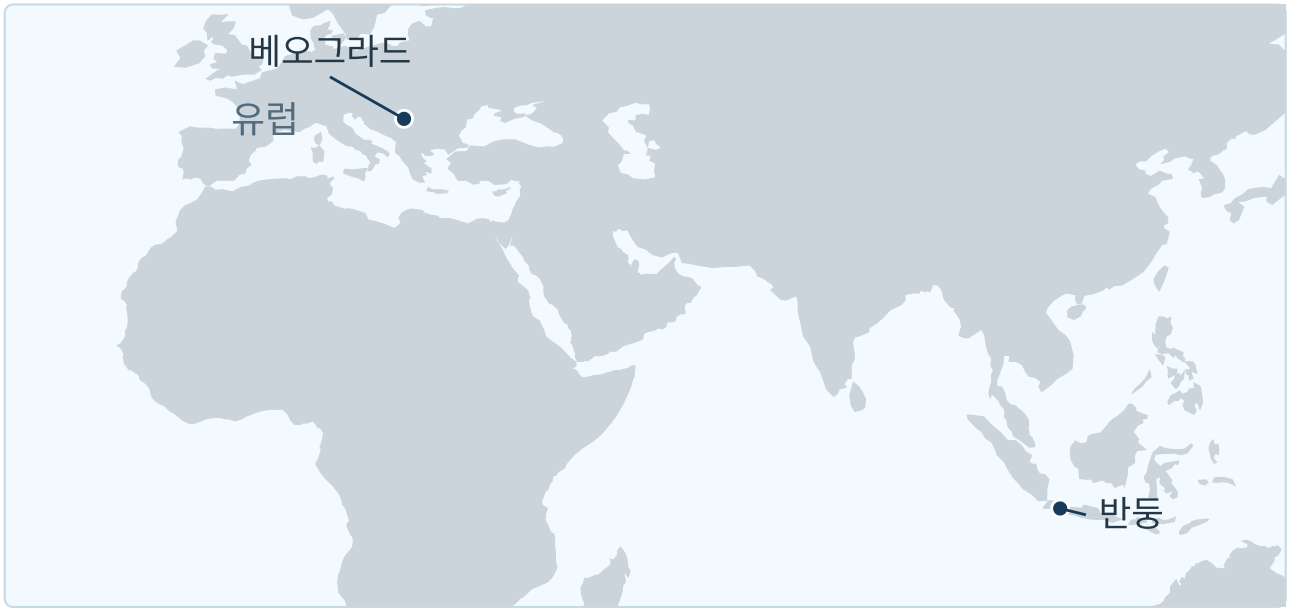


왼쪽 · 네루	가운데 · 나세르	오른쪽 · 수카르노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1955년 회의의 인물과 협력을 보여 주는 재구성 장면이에요. 실제 좌석의 복원은 아니에요.

> 왼쪽의 네루, 가운데의 나세르, 오른쪽 연단의 수카르노를 표현한 재구성 장면이에요. 실제 좌석 배치와 특정 순간을 복원한 기록 사진은 아니에요.

반둥과 베오그라드 · 개최지와 참가 인물



1955 · 반둥

인도네시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네루·나세르·수카르노



1961 ·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티토·네루·나세르
수카르노·은크루마
티토·은크루마는 이 회의부터 참석

네루·나세르·수카르노는 두 회의 모두 직접 참석했어요. 티토·은크루마는 1955년 반둥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어요.

건물은 반둥 회의가 열린 회의장(오늘날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박물관)을 재구성한 그림이에요.

> 반둥은 인도네시아, 베오그라드는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였어요.

헷갈리지 말 것 반둥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도시 이름이에요. 참가국 모두가 같은 체제였거나 이미 완전히 독립한 상태였던 것도 아니에요.

Q18 평화 10원칙은 무엇을 약속했나요?

답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협력하자는 방향이에요.

근거 주권은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내정은 한 나라 안의 정치·사회 문제예요. 따라서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강대국이 작은 나라의 정부나 정책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반둥 회의는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평화 10원칙 · 핵심 관계를 네 묶음으로

주권 존중
각 나라가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

내정 불간섭
남의 정부·정책을 마음대로 정하지 않음

평화적 해결
침략·무력 위협 경계, 분쟁은 평화적으로

평등과 협력
인종·나라의 평등, 서로의 이익 위해 협력

원칙의 핵심 관계를 묶었어요. 원칙 전체를 네 항목으로 줄인 목록은 아니에요.

> 평화 10원칙의 핵심 관계를 네 묶음으로 정리한 그림이며, 원칙 전체를 일대일로 옮긴 목록은 아니에요.

비유 옆집이 우리 집 저녁 메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헷갈리지 말 것 평화 10원칙과 1961년 비동맹 정상 회담은 같은 해의 같은 회의가 아니에요.

Q19 비동맹 정상 회담은 반둥 회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답 **반둥 회의는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대표들이 모인 회의이고,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은 1961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정상들의 회의예요. 두 회의는 시기·장소·참가 범위가 다르지만 협력의 경험으로 이어져요.**

더 알기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은 '제1차 비동맹 회의'·'비동맹 정상 회의'라고도 불러요.

근거 정상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1961년에는 티토·네루·나세르·수카르노·은크루마 등이 베오그라드에 모여 강대국 어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외교와 평화를 추구했어요. 반둥에서 네루·나세르·수카르노가 직접 참여한 것과 달리, 티토와 은크루마는 1955년 반둥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어요. 반둥의 공동 논의가 이후 비동맹 운동 발전의 바탕이 되었지만 동일한 조직·명단으로 그대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반둥과 베오그라드 · 연결되지만 다른 회의

항목	반둥 회의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연도	1955	1961
도시(나라)	반둥(인도네시아)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참가 범위	29개 나라·지역 대표	아시아·아프리카 외 유고슬라비아·쿠바 등
주요 인물	네루·나세르·수카르노	티토·네루·나세르 수카르노·은크루마
핵심 내용	반식민주의·인종 차별 반대 평화 10원칙	자율적인 외교 평화·반식민주의

협력 경험이 비동맹 운동 발전의 바탕이 됨 →

참가국·대표 명단은 같지 않아요. 티토·은크루마는 1955년 반둥 직접 참석자가 아니에요.

> 1955년과 1961년의 회의는 연결되지만 시기·장소·참가 범위가 달라요.

헷갈리지 말 것 반둥 회의 참가 명단과 비동맹 운동 참가국이 언제나 완전히 같았다고 보지 않아요.

Q20 비동맹은 미국·소련과 아무 교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어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려는 태도예요.**

근거 비동맹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미국이나 소련과 외교·무역·경제 원조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두 나라와 늘 똑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아니에요. 핵심은 강대국이 정한 편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독립과 평화, 자국의 판단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에요. 실제 정책과 강대국과의 관계는 나라별로 달랐어요.

비유 어느 한 친구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양쪽 친구와 이야기하고 물건을 빌릴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비동맹은 고립, 무관심, 모든 나라의 똑같은 정책을 뜻하지 않아요.

Q21 새 독립국들의 협력은 냉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세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의 대립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거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앞선 범아프리카 운동에서 차별과 식민 지배에 맞서 연대해 왔어요. 이런 반식민·연대의 경험과 전후 독립의 확대 속에서 새 독립국들은 반식민주의·평화·경제 발전 문제를 함께 제기했어요. 반둥 회의와 비동맹 운동은 국제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범아프리카 운동·반둥 회의·비동맹 운동은 관련되는 흐름이지만 같은 조직은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려는 목표 · 서로 다른 활동

독립
가나·알제리
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남

주권 강화
이집트 운하 회사 국유화
남아 있던 외국 영향력 축소

국제 협력
반둥 회의
평화·반식민주의의 공동 목소리

자율적인 외교
비동맹 운동
어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음

공통 목표가 있어도 모든 나라의 체제·정책·결과가 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 독립·주권 강화·국제 협력·자율적인 외교는 서로 구별되는 활동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제3 세계의 등장으로 냉전이 즉시 끝나거나 참가국 사이의 갈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핵심 빈칸 10~1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0.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의 도시는 ( )이다.

11. 반둥 회의에서 제시한 평화와 협력의 원칙을 ( )이라고 한다.

12. 어느 한 냉전 진영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외교를 추구한 운동은 ( ) 운동이다.

한눈에 정리 · 나라별 독립 정리표

나라(지역)	이전 통치국·독립 상대	독립·변화 시점	인물·세력	과정의 특징	질문
필리핀 (동남아시아)	미국	1946 독립	—	전후 독립	12
인도·파키스탄 (남아시아)	영국	1947 분리 독립	네루(인도)	종교 갈등 속 두 나라로 나뉨	10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네덜란드	1945 선언 → 1949 주권 이양	수카르노	선언 뒤 전쟁·협상	13
베트남 (동남아시아)	프랑스	1954 프랑스 철수 → 1975 전쟁 종결	호찌민	분단·베트남 전쟁	14
이집트 (북동아프리카)	영국	1922 독립 인정 → 1956 국유화	나세르	독립 뒤 주권 강화	06~09
가나(서아프리카)	영국	1957 독립	은크루마	대중 운동·첫 총리	04
말라야 (동남아시아)	영국	1957 독립 → 1963 말레이시아	—	이름·영역이 뒤에 바뀜	12
알제리 (북아프리카)	프랑스	1962 독립	민족 해방 전선	무장 투쟁·협상	05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파키스탄	1971 독립	—	파키스탄에서 분리	11

방글라데시는 영국에서 곧바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었어요. 색은 이전 통치국·독립 상대를 구별하며 지도 범례와 같아요.

확인 문제

객관식은 정답을 하나씩 고르세요.

확인 01

제2차 세계 대전 뒤 독립국이 늘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식민지 주민들의 독립 운동이 사라지면서 열강이 통치 비용을 줄였다.

② 모든 식민지가 같은 국제 회의에서 같은 날 독립을 인정받았다.

③ 주민들의 독립 운동에 전쟁으로 약해진 열강과 국제적 변화가 겹쳤다.

④ 식민지의 경제적 자립이 먼저 완성되어 독립 뒤의 경제 과제가 없어졌다.

⑤ 전쟁 뒤 유럽 국가의 힘이 더 강해져 식민지를 넓힌 결과였다.

확인 02

지도 속 (가)·(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도 자료



두 점은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의 대표 위치예요.

점은 두 나라의 대표 위치를 나타내요.

① (가) 알제리 · (나) 가나
② (가) 가나 · (나) 알제리
③ (가) 이집트 · (나) 가나
④ (가) 알제리 · (나) 이집트
⑤ (가) 이집트 · (나) 알제리

확인 03

‘1960년, 아프리카의 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립한 나라들은 그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까지 모두 완성했다.
② 아프리카 전체가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일되었다.
③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가 그해 한 곳도 남지 않고 끝났다.
④ 여러 나라의 독립이 집중되었지만 모든 나라의 독립 시기가 같지는 않았다.
⑤ 가나와 알제리도 모두 1960년에 독립했다.

확인 04

은크루마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인도의 초대 총리로 반둥 회의에 참여하였다.
② 가나의 독립 운동을 이끌고 1957년 독립 당시 첫 총리가 되었다.
③ 이집트 대통령으로 수에즈 운하 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④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⑤ 유고슬라비아에서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확인 05

알제리의 독립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영국의 지배를 받던 골드코스트가 1957년 이름을 바꾸어 독립한 사례이다.
② 인도와 함께 영국에서 벗어나 1947년 두 나라로 나뉜 사례이다.
③ 네덜란드가 주권을 이양한 동남아시아의 독립국이다.
④ 반둥 회의의 결정만으로 무장 투쟁 없이 독립이 이루어졌다.
⑤ 민족 해방 전선의 무장 투쟁과 협상을 거쳐 1962년 프랑스에서 독립하였다.

확인 06

이집트가 1922년 독립 인정 뒤에도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 까닭은?

① 독립을 인정받으면 국제 무역이 모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② 군사·경제 문제에 외국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③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1922년에 영국이 이집트를 새 위임 통치 지역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⑤ 가나와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국경을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확인 07

자료에서 바뀐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국·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던 운하 운영 회사의 자산과 운영권을 이집트 국가가 맡도록 바꾸었다.

① 운하가 이어 주는 두 바다의 위치
② 운하를 처음 건설한 시기
③ 이집트가 속한 대륙
④ 운영 회사의 소유·관리 주체
⑤ 외국 배가 영원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게 된 통행 조건

확인 08

1956년 수에즈 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으나 국제적 압력 속에 철수하였다.

② 미국은 같은 진영의 영국·프랑스를 무조건 지원해 침공을 확대시켰다.

③ 이집트가 새 운하를 완공한 날 영국이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④ 국제 연맹이 처음 위임 통치 제도를 만든 사건이었다.

⑤ 공격을 받은 이집트는 운하 운영권을 영국·프랑스에 돌려주었다.

확인 09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분리 뒤 인도에는 힌두교도만, 파키스탄에는 이슬람교도만 살게 되었다.

② 독립국이 된 뒤 파키스탄은 프랑스의 위임 통치 지역으로 바뀌었다.

③ 방글라데시가 이때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어 세 나라가 동시에 독립했다.

④ 영국이 지배를 끝낸 뒤 두 지역이 합쳐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⑤ 종교 공동체 간 갈등과 정치적 요구 속에서 두 나라로 나뉘었다.

확인 10

독립 당시 파키스탄의 두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쪽 지역이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였다.

② 두 지역은 서로 붙어 있어 인도의 동서 이동을 막았다.

③ 두 지역은 떨어져 있었고, 동쪽 지역이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였다.

④ 두 지역은 종교가 비슷했으므로 언어·정치 문제의 갈등도 없었다.

⑤ 동쪽 지역은 1971년에 인도와 합쳐져 인도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확인 11

동남아시아 지역과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주된 식민 지배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말라야 · 영국

② 미얀마 · 프랑스

③ 필리핀 · 영국

④ 캄보디아 · 미국

⑤ 인도네시아 · 영국

확인 12

수에즈 운하와 아스완 하이 댐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운하는 강물을 저장하고, 댐은 바다와 바다 사이에 배가 지나가게 한다.

② 1956년 나세르가 국유화한 대상은 아스완 하이 댐이었다.

③ 두 시설은 모두 지중해와 홍해 사이의 배 이동을 위해 이집트 북부에 세웠다.

④ 운하는 배의 통로이고, 댐은 강물의 저장·조절과 전력 공급에 쓰인다.

⑤ 1956년 국유화는 운하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댐을 세운 공사였다.

확인 13

베트남의 독립·전쟁 과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1954년 프랑스의 철수와 1973년 미군의 철수는 같은 사건의 다른 이름이다.

②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관여와 남북의 갈등도 즉시 사라졌다.

③ 인도차이나 전쟁 뒤에도 분단·냉전이 겹쳐 베트남 전쟁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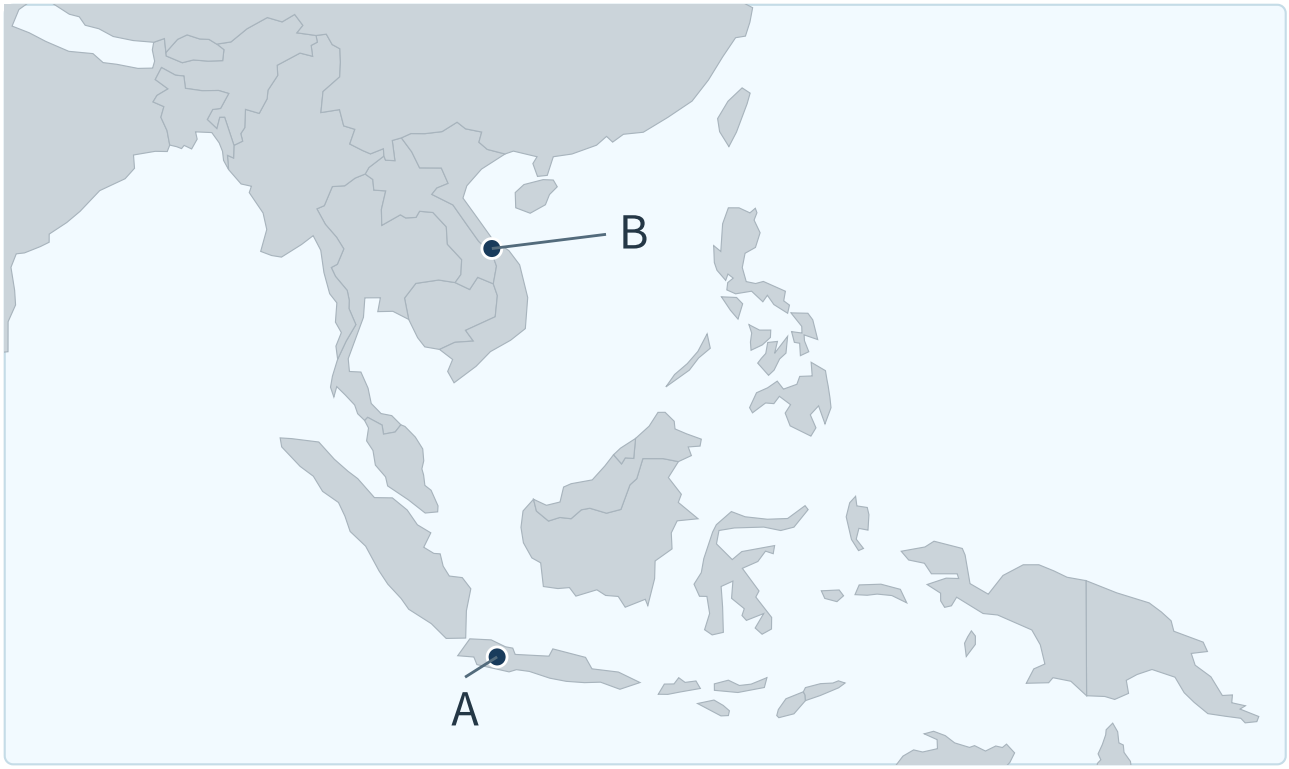
④ 1973년 미군 철수는 곧 그해 북베트남의 승리와 공식 통일을 뜻한다.

⑤ 남베트남 정부의 승리로 북베트남 정부가 무너지고 통일로 이어졌다.

확인 14

지도 속 A·B 지역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주된 식민 지배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도 자료



A·B는 두 지역의 대표 위치예요. 현대 윤곽이며 역사적 정밀 국경은 생략했어요.

두 지역과 이전 식민 지배국을 연결하는 지도 자료예요.

① A 프랑스 · B 네덜란드

② A 네덜란드 · B 미국

③ A 영국 · B 프랑스

④ A 미국 · B 프랑스

⑤ A 네덜란드 · B 프랑스

확인 15

냉전 시기 '제3 세계'라는 표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과 소련이 합쳐 만든 세 번째 군사 동맹

② 두 진영에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길을 추구한 신생 독립국 등의 흐름

③ 경제 규모로 모든 나라를 세 등급으로 나눈 순위

④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의 단일 정부

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세 나라의 모임

확인 16

유고슬라비아가 비동맹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① 제3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② 비동맹 운동은 아시아·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을 금지하였다.

③ 유고슬라비아는 1955년 반둥이 속한 나라였다.

④ 비동맹 운동에는 아시아·아프리카 밖의 나라도 참여하였다.

⑤ 비동맹 운동은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확대하려 했다.

확인 17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린 해와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1955년 · 베오그라드

② 1955년 · 반둥

③ 1961년 · 반둥

④ 1947년 · 반둥

⑤ 1961년 · 베오그라드

확인 18

평화 10원칙의 방향과 가장 잘 맞는 행동은?

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정부를 대신 정해 준다.

② 자원 원조를 조건으로 상대국의 외교 정책을 무조건 따르게 한다.

③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④ 경제 협력을 하려면 상대국의 주권을 먼저 없애야 한다.

⑤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한다.

확인 19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다.

② 반둥 회의보다 먼저 열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준비하였다.

③ 미국과 소련이 참가국의 군사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④ 식민 지배를 유지하려는 유럽 국가들만 참가하였다.

⑤ 반둥 회의와 같은 도시인 반둥에서 열렸다.

확인 20

한 비동맹 국가가 미국·소련과 외교·경제 관계를 맺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어느 나라와든 교류하면 비동맹이라는 목표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비동맹 국가는 두 강대국과의 무역액을 항상 똑같게 맞추어야 한다.

③ 교류를 하더라도 어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④ 원조를 받으면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을 자동으로 따르게 된다.

⑤ 비동맹은 외교 활동을 중단하고 국내 문제만 다루는 운동이다.

확인 21

제2차 세계 대전 뒤 서아시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팔레스타인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독립한 뒤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었다.

② 시리아와 레바논은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프랑스는 두 지역을 통치한 적이 없다.

③ 요르단은 프랑스의 위임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이다.

④ 여러 아랍 국가의 독립은 그 나라들이 즉시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뜻이다.

⑤ 지역에 따라 외국 통치에서의 독립, 새 국가 수립과 전쟁 등 서로 다른 과정이 나타났다.

확인 22

반둥 회의와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회의는 이름만 다르고 같은 해 같은 도시에서 열렸다.

② 반둥 회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동맹 정상 회담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열렸다.

③ 두 회의는 연결되지만 개최 시기·장소·참가 범위가 같지는 않았다.

④ 반둥 회의가 열린 뒤에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활동이 모두 끝났다.

⑤ 두 회의의 참가국과 대표자 명단은 완전히 같았다.

확인 23

앞선 식민 지배 저항과 전후 독립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앞선 저항이 진압되었다면 이후의 독립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오랜 저항과 조직의 경험에 전후의 변화가 더해져 독립으로 이어졌다.

③ 전후 독립은 지역 주민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얻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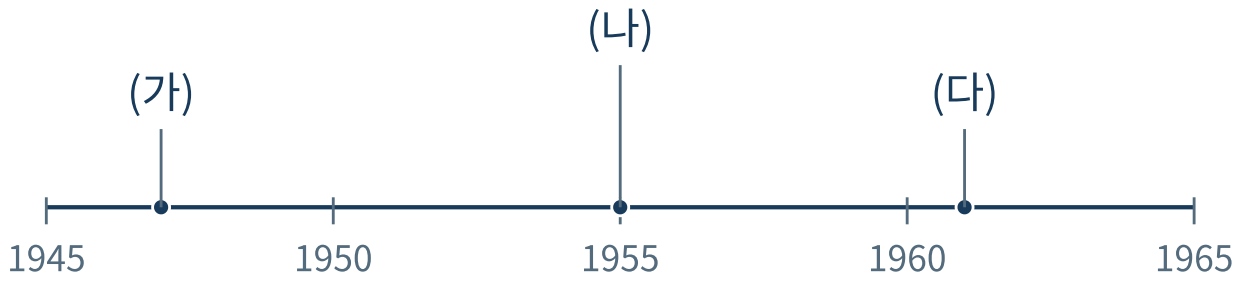
④ 같은 목표가 있었으므로 모든 나라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에 독립했다.

⑤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 갈등 해결도 그날 완성된다.

확인 24

연표의 (가)~(다)에 들어갈 사건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연표 자료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같은 가로 길이는 같은 시간이에요.

연도의 가로 위치는 시간에 비례해요.

① (가) 반둥 회의 · (나) 인도·파키스탄 독립 · (다)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② (가) 인도·파키스탄 독립 · (나)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 (다) 반둥 회의

③ (가)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 (나) 반둥 회의 · (다) 인도·파키스탄 독립

④ (가) 인도·파키스탄 독립 · (나) 반둥 회의 · (다)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⑤ (가) 반둥 회의 · (나)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 · (다) 인도·파키스탄 독립

확인 25 · 단답형

(1) 1956년 수에즈 운하 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인물과 (2) 기업이나 재산을 국가가 소유·관리하도록 바꾸는 정책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답

확인 26 · 서술형

‘1960년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독립했다.’라는 설명을 고쳐 쓰세요. 가나와 알제리의 독립 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답

확인 27 · 서술형

1947년의 인도·파키스탄 독립과 1971년의 방글라데시 독립을 비교하세요. 각각 어느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어떤 국가가 만들어졌는지 쓰세요.

답

확인 28 · 서술형

비동맹이 고립과 다른 까닭을 설명하세요. 강대국과의 교류 여부와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모두 포함하세요.

답

빠른 정답

핵심 빈칸

1	제2차	2	1960	3	1957	4	은크루마
5	프랑스	6	나세르	7	국유화	8	인도·파키스탄
9	방글라데시	10	반둥	11	평화 10원칙	12	비동맹

확인 01~24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⑤	10	③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②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③	21	⑤	22	③	23	②	24	④

확인 25~28

번호	핵심 답
25	(1) 나세르 (2) 국유화
26	1960년에는 아프리카의 17개국이 독립했지만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독립한 것은 아니다. 가나는 1957년, 알제리는 1962년에 독립했다.
27	1947년에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뉘어 독립했다. 1971년에는 파키스탄의 동쪽 지역이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28	비동맹 국가는 미국·소련과 외교·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느 한 진영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려 했으므로, 모든 교류를 끊는 고립과 다르다.

정답과 해설

확인 01 해설 · ③

정답 근거: 주민들의 활동과 전쟁 뒤 국제적 조건이 함께 작용했어요.

- ① 주민들의 독립 운동은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사라졌다는 설명이 틀렸어요.
- ② 지역마다 독립 시기와 과정이 달랐어요.
- ④ 경제적 자립의 완성이 독립의 전제였던 것은 아니에요. 독립 뒤에도 경제 과제가 남았어요.
- ⑤ 열강의 약화가 배경이에요. 식민지 확대의 결과와 방향이 달라요.

연결: 질문 01·15.

확인 02 해설 · ①

정답 근거: (가)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 (나)는 서부의 가나 위치예요.

- ② 북부 알제리와 서부 가나를 뒤바꾸었어요.
- ③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어요. (가)의 위치와 달라요.
- ④ (나)는 서부 가나예요. 이집트의 위치와 달라요.
- ⑤ 이집트는 북동부, 알제리는 북부에 있어요. (나)는 서부 가나예요.

연결: 질문 03~05.

확인 03 해설 · ④

정답 근거: 1960년 17개국이 독립했지만, 가나 1957년·알제리 1962년처럼 다른 시기의 독립도 있어요.

- ① 독립 뒤에도 경제적 자립·사회 통합 과제가 남았어요.
- ② 여러 독립국이 생긴 것이지 한 나라로 통일된 것이 아니에요.
- ③ 1960년에 모든 식민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 ⑤ 가나는 1957년, 알제리는 1962년에 독립했어요.

연결: 질문 03.

확인 04 해설 · ②

정답 근거: 가나·독립 운동·1957년·첫 총리를 연결해요.

- ① 인도의 네루와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 ③ 이집트의 나세르와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 ④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 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연결: 질문 04·17·19.

확인 05 해설 · ⑤

정답 근거: 알제리·민족 해방 전선·프랑스·1962년을 연결해요.

- ① 가나의 독립 과정이에요.
- ② 인도·파키스탄의 독립 과정이에요.
- ③ 인도네시아와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알제리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 ④ 반둥 회의만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전쟁과 협상이 있었어요.

연결: 질문 05.

확인 06 해설 · ②

정답 근거: 독립의 인정과 실제로 남은 외국의 영향력을 함께 보아야 해요.

- ① 독립이 국제 무역 금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 ③ 운하는 1869년에 이미 개통되었어요.
- ④ 이집트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22년 독립을 인정받았어요. 새 위임 통치가 아니에요.
- ⑤ 이집트의 주권 강화와 가나와의 국가 통합은 다른 내용이에요.

연결: 질문 06~07.

확인 07 해설 · ④

정답 근거: 국유화는 운영 회사의 자산과 운영권을 이집트 국가가 맡도록 바꾼 일이에요.

- ① 지중해와 홍해라는 위치 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 ② 이미 있던 운하의 운영권을 바꾼 것이지 처음 건설한 것이 아니에요.
- ③ 나라가 속한 대륙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에요.
- ⑤ 국유화는 소유·관리 주체를 바꾼 것이며 외국 배의 영구 통행 금지를 뜻하지 않아요.

연결: 질문 07.

확인 08 해설 · ①

정답 근거: 국유화 뒤의 공격과 국제적 압력, 철수를 연결해요.

- ② 미국도 공격에 반대하며 철수를 압박했어요.
- ③ 국유화의 주체는 나세르의 이집트 정부예요. 새 운하 완공과 달라요.
- ④ 위임 통치 제도는 제1차 세계 대전 뒤 국제 연맹과 관련돼요.
- ⑤ 이집트는 공격한 나라들이 철수한 뒤에도 운하 통제를 유지했어요.

연결: 질문 07~08.

확인 09 해설 · ⑤

정답 근거: 종교별 다수 지역과 정치적 요구를 보되, 실제 주민이 완벽하게 분리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 ① 어느 나라든 다양한 종교의 주민이 함께 살았어요.
- ② 영국에서 독립한 것이지 프랑스 위임 통치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 ③ 방글라데시의 독립은 1971년이에요.
- ④ 한 국가로 합친 것이 아니라 두 나라로 나뉘어 독립했어요.

연결: 질문 10~11.

확인 10 해설 · ③

정답 근거: 인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두 지역 가운데 동쪽이 방글라데시가 되었어요.

- ① 방글라데시가 된 곳은 동쪽 지역이에요.
- ② 두 지역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어요.
- ④ 종교적 공통점이 언어·정치 문제까지 없애지는 못했어요.
- ⑤ 동쪽은 방글라데시라는 독립 국가가 되었어요.

연결: 질문 11.

확인 11 해설 · ①

정답 근거: 말라야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 ② 미얀마의 주된 식민 지배국은 영국이에요.
- ③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에서 독립했어요.
- ④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 ⑤ 인도네시아의 주된 식민 지배국은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예요.

연결: 질문 12.

확인 12 해설 · ④

정답 근거: 운하의 배가 지나가는 기능과 댐의 물 저장·조절·수력발전 기능을 구별해요.

- ① 두 시설의 기능을 뒤바꾸었어요.
- ② 국유화 대상은 수에즈 운하 운영 회사였어요.
- ③ 아스완 하이 댐은 이집트 남부 나일강에 있어요. 두 바다를 잇는 배의 통로가 아니에요.
- ⑤ 국유화는 운영 회사의 소유·관리 주체를 바꾼 일이에요. 시설을 댐으로 바꾼 공사가 아니에요.

연결: 질문 07·09.

확인 13 해설 · ③

정답 근거: 1954년 인도차이나 전쟁 종결 뒤에도 분단·전쟁이 이어졌고,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어요.

- ① 서로 다른 나라가 다른 시점에 철수한 일이에요.
- ②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도 분단과 전쟁이 이어졌어요.
- ④ 미군은 1973년 철수했지만 전쟁 종결은 1975년이에요.
- ⑤ 1975년 승리한 쪽은 북베트남이에요. 승패의 주체를 뒤바꾸었어요.

연결: 질문 14.

확인 14 해설 · ⑤

정답 근거: A는 인도네시아로 네덜란드, B는 베트남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 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지배국을 뒤바꾸었어요.
- ② 베트남의 주된 식민 지배국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예요.
- ③ 인도네시아의 주된 식민 지배국은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예요.
- ④ 인도네시아의 주된 식민 지배국은 미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예요.

연결: 질문 12.

확인 15 해설 · ②

정답 근거: 냉전의 양대 진영 속에서 자율적인 길을 찾으려 한 흐름이에요.

- ① 하나의 새 군사 동맹을 뜻하지 않아요.
- ③ 우열이나 경제 순위를 매긴 등급이 아니에요.
- ④ 아프리카만의 단일 정부가 아니에요.
- ⑤ 전쟁의 패전국 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연결: 질문 16.

확인 16 해설 · ④

정답 근거: 유고슬라비아는 유럽의 나라였어요. 제3 세계를 특정 대륙에만 가두면 안 돼요.

- ① 유럽의 참여 사례와 맞지 않아요.
- ② 비동맹은 교류 금지를 뜻하지 않아요.
- ③ 반둥은 인도네시아의 도시예요.
- ⑤ 비동맹 운동은 반식민주의·자율적인 외교와 연결돼요.

연결: 질문 16·19.

확인 17 해설 · ②

정답 근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어요.

- ① 베오그라드는 1961년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이 열린 도시예요.
- ③ 반둥 회의는 1961년이 아니라 1955년이에요.
- ④ 1947년은 인도·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해예요.
- ⑤ 1961년 베오그라드는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의 해·도시예요.

연결: 질문 17·19.

확인 18 해설 · ⑤

정답 근거: 주권 존중·내정 불간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함께 적용해요.

- ① 내정과 주권에 대한 간섭이에요.
- ② 원조를 빌미로 강요하는 행동은 자율적인 결정과 달라요.
- ③ 체제 차이가 전쟁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 ④ 협력과 주권 존중은 함께 추구할 수 있어요.

연결: 질문 18.

확인 19 해설 · ①

정답 근거: 1961년·베오그라드·비동맹 정상 회담을 연결해요.

- ② 반둥 회의는 1955년, 제1차 비동맹 정상 회담은 1961년이에요. 순서를 바꾸었어요.
- ③ 두 강대국이 대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 ④ 반식민주의와 스스로 정한 외교를 추구한 흐름이에요.
- ⑤ 개최지는 반둥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예요.

연결: 질문 19.

확인 20 해설 · ③

정답 근거: 비동맹의 핵심은 고립도, 두 나라와의 관계를 숫자로 똑같이 맞추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 ① 교류와 종속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 ② 두 나라와의 관계를 수치로 같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 ④ 원조 관계만으로 모든 정책의 자동 복종을 단정할 수 없어요.
- ⑤ 비동맹 국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연결: 질문 20.

확인 21 해설 · ⑤

정답 근거: 시리아·레바논·요르단의 독립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건국·전쟁을 같은 과정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 ① 이스라엘 건국과 전쟁, 팔레스타인 난민·영토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한 국호 변경이 아니에요.
- ② 시리아·레바논에서는 프랑스의 통치와 주둔 문제가 중요했어요.
- ③ 요르단은 영국의 위임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 ④ 여러 독립국의 수립과 하나의 국가로의 통합은 달라요.

연결: 질문 02.

확인 22 해설 · ③

정답 근거: 1955년 반둥의 협력 경험이 1961년 베오그라드의 비동맹 운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 ① 1955년과 1961년, 반둥과 베오그라드는 달라요.
- ② 두 회의의 장소를 뒤바꾸었어요.
- ④ 반식민주의 활동은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 ⑤ 참가 범위가 달라요. 티토·은크루마를 1955년 반둥 직접 참석자로 보지 않아요.

연결: 질문 17~20.

확인 23 해설 · ②

정답 근거: 오래 쌓인 독립 운동의 경험과 전후 국제적 변화를 함께 보아요.

- ① 당장의 진압과 뒤에 남긴 영향은 구별해야 해요.
- ③ 지역 주민들의 활동은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 ④ 공통 목표와 구체적 과정·시기의 차이는 함께 존재해요.
- ⑤ 독립 뒤에도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의 과제가 남았어요.

연결: 질문 01·15·21.

확인 24 해설 · ④

정답 근거: (가)는 1947년, (나)는 1955년, (다)는 1961년의 사건이에요.

- ① 1947년 독립과 1955년 회의를 뒤바꾸었어요.
- ② 1955년 반둥 회의와 1961년 비동맹 정상 회담을 뒤바꾸었어요.
- ③ 1961년 비동맹 정상 회담이 1947년 독립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 ⑤ 1947년 독립은 세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예요.

연결: 질문 10·17·19.

확인 25 해설 · 단답형

정답 근거: 인물의 이름과 정책의 뜻을 나누어 확인해요.

예시 답안: (1) 나세르 (2) 국유화

요소	배점	인정 기준
인물	1점	나세르
정책	1점	국유화

뜻이 같은 정확한 풀이는 인정해요. 정확한 설명과 반대되는 주장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0점이에요.

연결: 질문 06~07.

확인 26 해설 · 서술형

정답 근거: 독립이 집중된 해와 각 나라의 독립 시기를 구별해요.

예시 답안: 1960년에는 아프리카의 17개국이 독립했지만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독립한 것은 아니다. 가나는 1957년, 알제리는 1962년에 독립했다.

요소	배점	인정 기준
범위	1점	1960년 여러 나라/17개국 독립, 모든 나라가 같은 해는 아님
사례	2점	가나 1957년·알제리 1962년 각각 1점

뜻이 같은 정확한 풀이는 인정해요. 정확한 설명과 반대되는 주장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0점이에요.

연결: 질문 03~05.

확인 27 해설 · 서술형

정답 근거: 같은 지역의 변화라도 독립의 상대와 새 국가를 시점별로 구별해요.

예시 답안: 1947년에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뉘어 독립했다. 1971년에는 파키스탄의 동쪽 지역이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요소	배점	인정 기준
1947년	2점	영국에서 벗어남 1점, 인도·파키스탄 두 나라 1점
1971년	2점	파키스탄에서 벗어남 1점, 동쪽 지역의 방글라데시 수립 1점

뜻이 같은 정확한 풀이는 인정해요. 정확한 설명과 반대되는 주장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0점이에요.

연결: 질문 10~11.

확인 28 해설 · 서술형

정답 근거: 교류하는가와 누구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가를 나누어 설명해요. 친구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듯, 비동맹은 교류 단절을 뜻하지 않아요.

예시 답안: 비동맹 국가는 미국·소련과 외교·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느 한 진영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려 했으므로, 모든 교류를 끊는 고립과 다르다.

요소	배점	인정 기준
교류	1점	미국·소련과 외교·무역·원조 등의 교류 가능
결정 주체	2점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정책 결정. 자율성 없이 교류만 쓰면 이 요소 0점

뜻이 같은 정확한 풀이는 인정해요. 정확한 설명과 반대되는 주장을 덧붙이면 해당 요소는 0점이에요.

연결: 질문 19~20.